

국가대표상비군 훈련지 '인기'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개관·1종 육상공인구장… 동계 전지훈련 돌입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인프라로 국가대표 선수 전지 훈련지로 인기를 끌며 명실 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립한 펜싱아카데미 와 도내 유일 1종 공인 육상경기장을 통해 체육대회의 비수기인 겨울시즌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혜력을 불어넣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 전지훈련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오는 15 일부터 2주간 약 6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그간 익산시에서 진행한 지난해 동계(1월), 하계(8월) 훈련에 이어 올해부터는 펜싱아카데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펜싱아카데미는 전국 최대 규모로 펜싱피스트 15개와 사워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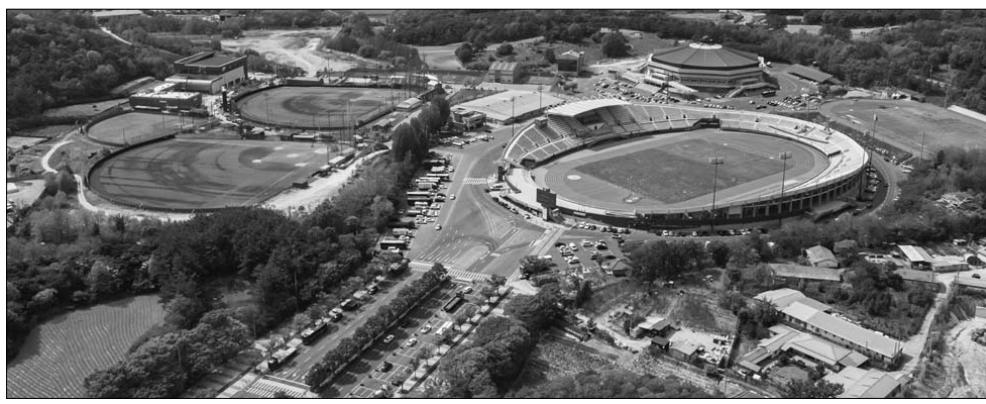
이에 앞서 육상(투척) 국가대표 상비군이 1월 중순부터 오는 2월 13일 까지 전지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 동계전지훈련을 2주간 진행하였던 육상 대표팀은 익산시의 뛰어난 시설과 지원으로 2023년 동계전지훈련 역시 연달아 진행하게 됐다.

김순운 육상 상비군 전임지도자는 "선수단에게 익산은 최적의 전지훈련지이기에 지난 12월에 이어 다시 익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시는 익산시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T2군의 연고지로 야구장 3면을 보유한 익산의 야구 인프라가 전지 훈련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다음 달 3일 전국의 리틀야구 선수단 15개팀이 순환식으로 익산을 방문해 익산시 리틀야구장 및 보조야구장 등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2월에 이어 또다시 익산을 선택하여 방문한 육상 선수 및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리틀야구 동계전지훈련 선수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스포츠 인프라와 전지훈련 환경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인프라로 국가대표 선수 전지 훈련지로 인기를 끌며 명실 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사진은 익산 공설운동장 전경.

'장애인 자립지원 군산시가 함께해요'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발굴… 맞춤형일자리 제공

군산시는 지난 25일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에게 맞춤형일자리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도 대비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43명 확대해 총 226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별달장에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를 포함한 3종의 장애인일자리 유형을 신규 추진해 총 8종의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1년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유형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도우미로, 주로 관공서나 기관에 근무하며, 전일제(주40시간) 또는 시간제(주20시간)로 81명이 선발되어 근무하고 있다.

복지 일자는 참여형과 특수교육연계형, 최종증정장애인 공공일자리로 사무보조, 환경정비, 봉사상담,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30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화형일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과 별달장에인 요양보호

사 보조일자리로 주 25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5명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했으나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일반형일자리를 제외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수행기관을 지난해 10월 선정,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인권연대, 대한안마사협회 등과 함께 올해 8개사업 226명의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유명쉐프와 함께하는 지역요리 강좌

군산시, 구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단 혁신상인아카데미 강연 성료

군산시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군산공설시장 내 3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레오 쉐프의 요리 시연행사와 상권 전문가 3명의 강연 등 '혁신상인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0일 진행된 강레오 쉐프의 미스터 셀러 군산 특강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영업전략과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매출 증대 노하우에 대한 강연과 함께 지역특산품인 바지락을 이용한 슬립을 상인들과 함께 만들었고, 상인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31일에는 고객서비스 향상과 상품마케팅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3명의 전문 강사들은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상인マイ드 힘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CJ홈쇼핑

MD로 활동한 유통전문가 임상운 강사의 온라인으로 상품풀기 A to Z, 농협, 삼성 등 대기업에서 디자인을 담당한 이주형 강사의 '디자이너를 감동시키는 클라이언트', 국제서비스협회 위촉 대한민국 행복 멘토로 일하고 있는 이처럼 강사의 '도약을 위한 쉽표 주제의 강연은 해당 아카데미에 참여한 상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아카데미를 기획한 브네상스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강의가 상인들의 점포 성장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권전문가를 초빙하는 아카데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강연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군산 소상공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나는 익산의 보석
이다 시민 유튜버 모집

익산시는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문화도시 유튜브 채널 '이리랑 익산'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나는 익산의 보석이다 (나익보)' 시민 유튜버를 모집한다.

'이리랑 익산'은 '나는 익산의 보석이다'라는 주제로 시민 모두가 보석이라는 의미를 담아 시민들의 일상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장소에 대한 영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시민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채널이다.

모집주제는 총 4개로 △나만 알고싶은 숨은 보석 같은 공간 △익산의 즐길거리, 볼거리 등 힐플레이스 △나만의 취미생활 소개 △번려동물과 반려공공시설 이용 후기 브이로그 등으로 익산 거주자면 누구나 제한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익산=이재준 기자

군산시,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업체 지도·점검 실시

군산시는 올해 각 분기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련업체에 준법의식을 향상 시키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2월부터 실시하는 자동차관련 점검대상은 275개소로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번호판교부대행업 등이며, 건설기계관련 대상은 182개소로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점검실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 및 건설기계관리사업 412개소에 대해 점검실시 완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자동차관리 사업체들이 위법·부당행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미비사항을 시정조치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대표음식점 발굴·육성 환경정비 조성

군산시는 전통과 맛이 있는 대표음식점 발굴·육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조성을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맛집·모범음식점 등 친절서비스 향상 및 환경정비 조성으로 체험관광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모범·맛집 78개소 시설개선 86개소, 인심식당 26개소, 위생등록 지정 142개소 등 572개소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생용품 지원 324개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44개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대표음식점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올해에도 맛집·모범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심식당 지정 및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 이를 당면에 대한 홈페이지, SNS홍보, 홍보책자 발간, 군산 향토 대표 음식분야 추진단 구성해 내실있는 계획수립 등으로 군산 향토·대표 음식을 발굴 육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은 맛과 멋이 공존하는 도시로 음식점의 특색을 살리고 진절제서비스를 향상시켜 한 번 방문하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신청… 농가당 60만원

익산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주 소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 및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논밭 향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훼부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양봉농기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예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익산e로움카드(지역화폐)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준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